

日本の 食品産業 現況

최태동 · 박창근
(기술관리부)

1. 概況

일본의 식품가공산업은 전통적·지역적 산업으로부터 현대적·전국적 규모의 기업으로 발달했으나 아직은 많은 중소식품가공업체들이 현대적 대규모 식품회사들과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수요는 이미 정점에 이르러 수요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고품질의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식품산업은 새로운 식품개발을 위한 기술과 경영이 요구되며 해외 식품산업과의 경쟁, 무역규제, 국내유통문제 그리고 식품산업에의 새로운 업체의 진입등의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

일본은 식품가공업체수에 있어서 1987년 현재 80,645개로 영국의 10,331개와 독일의 4,336개 보다 훨씬 많으며 일본 식품산업의 총고용인력은 미국의 145만명에 이어 126만명을 기록하여 영국과 프랑스 보다는 각각 50만명 이상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1개 업체당 고용인력수는 영국의 56명, 독일의 102명에 비해 훨씬 적은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식품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임을 보여준다.

일본 식품산업의 출하액은 2,075억 불로 미국의 약 2/3이나 독일의 2배, 프랑스와 영국의 약 3배에 각각 해당된다.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출하액의 비율은 일본이 11.7%로 5개국중 가장 낮으며 1개 업체당 출하액 역시 영국의 절반 그리고 독일의 약 1/8정도이다. 그러나 고용인력 1인당 출하액은 16만5천불로서 미국과 독일 보다는 적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일본의 전체 산업체수중 식품가공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 17.2%로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1988년에는 10.9%에 이르렀으나 식품산업에 고용된 인력의 전체산업에 대한 비율은 연평균 약 10.6%이고 연도별 변동은 거의 없었다.

또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출하액의 비율은 65년 13.2%에서 88년 11.1%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동기간중 절대액에 있어서는 3조 8,840억엔에서 30조 9,070억엔으로 약 10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동기간에 농업생산은 3조1,770억엔에서 10조5,350억엔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표 1).

가계지출에서 식품비 지출의 비중(엔겔계수)은 1970년 36.0에서 89년 26.8로 감소하였다. 이 숫자는 다른 선진국들이 20이하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나 이는 일본의 높은 식품비에 기인한다. 전체 식품비 지출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년 44.0%에서 89년 48.4%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곡물에 대한 지출은 17.9%에서 6.7%로 크게 감소하였고 신석식품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의식비에 대한 지출은 동기간중 7.2%에서 16.4%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표1. 식품가공산업 및 농수산업의 출하액

(단위 : 10억엔)

구분	1965	1975	1980	1985	1988
식품가공산업(A)	3,884	15,131	22,512	29,505	30,907
농업(B)	3,117	9,051	10,263	11,630	10,535
수산업(C)	594	1,921	2,784	2,902	2,722
B+C	3,711	10,972	13,047	14,532	13,257
A/(B+C)	1.03	1.38	1.73	2.03	2.33

주) 본고는 아시아生産性本部(APO)가 1990년 10월 16일-26일간 실시한 "Multi-Country Study Mission on Food Processing Industry"에서 발표된 참가국 각국의 식품산업 현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앞으로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식품산업 현황을 연재할 예정이다.

II. 食品産業의 現況

1988년 제조업총조사(Census of Manufacture)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품의 출하액이 4조7천억엔으로 전체 식품가공산업 출하액의 15.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부문이다. 다음은 알코올음료 부문으로 4조4천억엔이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세번째로는 제과부문으로 전체의 약 12.7%를 차지했다. 수산제품은 3조8천억엔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고 그밖에 담배, 제분, 조미료, 비알콜음료 등 기타부문이 1조엔을 나타냈다.

1987년 300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300인 보다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의 수는 335개소로서 전체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황은 종업원 300인 이하의 업체가 99.5%를 차지하는 다른 제조업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300인 이하의 업체가 식품산업 전체 출하액의 78.8%를 차지하는데 비해 다른 제조업 부문에서는 300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출하액의 53.2%를 차지했다. 이는 식품가공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체의 주도적 역할이 돋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생산성을 보면 전체 식품가공산업의 1인당 출하액은 평균2,380만엔이었고 그중에 맥주, 담배, 식용유, 커피 및 비알콜음료, 사료, 주정 등의 부문은 5천만엔을 초과했는데 이는 대규모의 자동화시설을 도입한 업체가 이 부문에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 식품가공산업에서 수입원료의 사용은 대량산물형태산업(Bulk Product Type Industry)과 고차가공형태산업(Advanced Processing Type Industry)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75년과 85년사이 수입원료 사용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제분과 제당 부문에서 현저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생산증가에 기인한다. 고차가공형태산업의 수입원료 사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육가공품과 수산가공품에 있어 현저하다.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가공식품의 수입의 빠른 증가가 지난 몇 해 동안 있어왔다(표 2).

지난 몇해동안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가공식품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는데 1989년에는 위스키, 와인, 브랜드 같은 주류와 과일·과채류

음료, 애완동물사료, 육가공품, 코코아 그리고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였다.

표 2. 가공식품 수입현황, 1989.

구 분	수입량(톤)	88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천불)	88년대비 증가율
어류가공품	112,150	1.3	953,091	-1.0
위 스 키	77,476	35.0	479,317	67.1
채소가공품	303,271	-3.7	340,912	-1.9
브 랜 디	26,107	35.4	336,624	35.3
포 도 주	90,241	7.0	326,370	40.9
애완동물사료	149,727	36.6	209,786	42.7
육 가 공 품	60,270	33.0	205,909	32.0
과채주스(KI)	230,132	65.4	163,896	43.3
생 수 (KI)	230,132	6.0	162,748	5.5
과실통조림	131,615	7.3	148,947	9.0
코코아제품	99,522	10.0	134,038	27.0
견과류제품	63,525	13.5	122,295	12.4
커피제품	25,357	-8.7	106,959	-20.9
초코렛과자	18,344	-11.7	105,649	-8.7
토마토제품	98,328	7.2	100,787	26.9

III. 加工食品의 流通

일본 가공식품의 주된 유통경로는 도매업체, 소매업체, 자동판매기 그리고 식품 서비스산업을 들 수 있다.

1970년과 1988년 사이에 식품·음료 도매업체가 전체 도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1%에서 12.6%로 줄었지만 그 수에 있어서는 38,655개에서 약 55,000개로 증가하였다. 이 도매업체들이 차지하는 판매액은 동기간중 5.8배 증가하여 40조엔에 이르렀는데 전체 도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에서 8.9%로 증가하였다.

상업센서스 추정에 의하면 1985년 전국 소매업체의 수는 162만에 이르는데 이는 백화점, 슈퍼마켓등의 대규모 소매업체 약 8,000개소, 편의점, 소규모슈퍼마켓과 같은 중간 크기의 소매업체 약 80,000개소 그리고 소규모 소매업체 약 153만개소를 총괄할 수이다. 1982년과 1985년 사이 소매업체수는 연평균 1.8%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소매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0.2%가 감소하였고 총판매액은 2.7% 증가하였다.

근년에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및 음료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는데 캔류음료의 판매가 가장 현저하였다(표 3). 1988년 273만개의 자동판매기로부터 매출액은 2.1조엔이었는데 이는 1987년에 비해 자동판매기 수의 큰 변화없이 매출액이 약 13%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30년간 가계소득의 증가로 일본인의 생활양식이 매우 다양화해졌는데 예를들면 최근에 여성의 사회진출, 이중소득원(맞벌이) 가계의 증가, 독신가계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1989년 식품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은 일본인의 전체 식품·음료 지출비의 36%를 차지하는 23조7천억엔에 달했다. 70년대에는 연평균 10%씩 성장했으며 80년에 들어 그 성장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아직 연평균 5%를 유지하고 있다. 식품서비스산업의 주된 기능은 식사의 제공으로 이 부문의 매출액이 1989년 약 17조6천억엔을 차지하며 찻집·다방같은 음료의 제공에 따른 판매액이 6조1천억엔에 이른다.

표 3. 자동판매기 매출실적, 1988

구분	판매기수 (천개)	87년대비 증가율	매출액 (백만엔)	87년대비 증가율
<음료품>				
청량음료	1,893.3	0.6	1,327,640	15.4
우유	144.2	-1.9	119,398	4.7
커피, 코코아	253.3	2.7	207,297	10.0
청주, 맥주, 위스키	202.8	0.9	347,704	14.3
<식료품>				
초코렛, 껌	96.8	-8.2	15,066	-4.7
빵, 과자	24.5	5.0	11,374	8.5
면류, 도시락, 샌드위치	70.8	-1.0	86,344	-0.6
아이스크림, 빙과	43.0	6.0	13,452	8.2

IV. 要約 및 結論

칼로리 기준으로 일본인의 식품소비량은 성장이 거의 중지되고 있으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의 섭취체계에 있어서는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는 증가하나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식품수요증가의 둔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체들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식품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 아니라 가격할인(Rebate)의 증가, 재정지원 그리고 판매원의 파견등을 통한 식품산업의 지출이 증가되었다.

식품산업의 수산업과의 강한 역사적·지역적 연대로 국내 원료를 가능한 한 사용하나 국내 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원료가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국내원료 사용이 필요하나 일본 농업의 영세성 때문에 식품산업은 높은 가격을 치루어야만 한다.

엔화 평가절상은 가공식품 수입의 증가를 가져와 수입가공식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켜 식품가공산업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노동력 공급의 한계와 엔화의 절상 그리고 무역마찰은 일본 식품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기반을 해외로 옮기게 하였다. 또한 1989년에 발효된 3% 소비세는 식품가공산업에도 예외없이 가공식품의 모든 유통단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장래의 세율 인상시에는 식품류에 대한 감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본 식품 가공산업의 역할은 가공되고 다양화된 식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해외 식품업체와의 경쟁은 심화되고 비식품산업에서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참여와 식품산업 내부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영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고 제품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